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적 모호성 이해¹⁾

이 승 복 * · 이 희 란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해전대학 언어교정과)

이승복·이희란.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적 모호성 이해.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 1호, 14-29.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단어 및 문장에 대한 이해는 의미적 처리와 통사적 처리를 함께 요구하므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적 모호성의 이해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개별어휘수준 또는 문장수준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정상아동과 비교하였다. 실험 1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해 개별어휘정의하기에서 열세정의에는 결함을 보이지만, 우세정의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장수준의 이해를 측정한 실험 2에서는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고 우세 또는 열세 의미로의 처리능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별어휘정의하기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집단에 비해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맥락에서도 열세의미 처리에서는 결함을 보이지만, 우세의미 처리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별어휘정의하기에서 어려움을 보였던 열세의미가 문장맥락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어휘적 모호성에 대한 처리에 도움을 받아 정반응 점수가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열세의미 이해는 어려웠다. 즉,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적 모호성에 대한 이해는 열세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문장맥락에서는 정상아동과 같이 어휘적 모호성을 열세의미 이해에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단순언어장애, 어휘적 모호성, 단어정의하기, 문장이해, 언어습득

I. 서 론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을 들 수 있다 (Whitney, 1999). Chomsky(1981)의 전통에 따르는 심리언어학자들의 한 집단에서는 문장에 대한 최초의 어휘적 접근과 최초의 통사론적 분석이 자율적(autonomous)이어서, 두 가지의 분석처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Frazier, 1989). 이들은 문장에 이미 들어있는 의미론적 정보나 문장에 관련된 배경지식은 어휘적이고 통사론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초기” 처리 단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Langacker(1991)에 따르는 다른 연구자들은(Taraban & McClelland, 1988; Trueswell, Tanenhaus & Garnsey, 1994), 의미론적 정보가 어휘적 접근과 통사적 분석을 유도하는데 사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어휘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수준들 사이의 소통이 상당히 상호작용적이라고 본다.

¹⁾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문장 이해와 관련된 어휘적 접근과 통사론적 접근의 단원성 또는 상호작용성에 관한 논의는 언어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왔다. 이 연구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과제가 어휘적 모호성(lexical ambiguity)을 가진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해 과제이다. 어휘적 모호성, 곧 둘 이상의 뜻을 지닌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이해 과제는 모호했던 단어의 의미가 통사론적 문장 맥락에 의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정보와 통사론적 정보를 함께 요구하는 과제이므로 두 가지 처리과정이 단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처리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장애를 보이는 이들이 가진 문제점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어휘적 모호성 처리에 관한 연구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기본적인 두 과정, 곧 의미론적 처리와 통사적인 처리에서 어떤 문제로 장애를 보이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과제가 된다. 또한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단원성 가설과 상호작용 가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어느 한 과정에만 장애를 보이는 것이라면, 단원성 쪽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고, 장애의 정도가 두 과정에서 모두 일어난다면 상호작용 쪽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장애를 보이는 경우, 정상인과 비교하여 어휘적 모호성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모호성의 이해와 관련하여 지적 능력에는 결함이 없지만 언어의 여러 측면에서 결함을 함께 보이는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아동의 문장이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어휘발달이 정상아동에 비해 늦게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낱말 수를 늘려가지 못하거나 제한된 동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낱말조합 역시 늦게 시작하며 구문구조의 사용에서 많은 실수를 보인다. 특히 조사나 연결어미 등과 같은 문법적 기능어의 습득에 어려움을 보이며 문장에서 주요한 통사적 범주들을 사용하더라도 주요 논항(argument, 목적어 등)을 빠뜨리거나 주동사 자체를 생략하는 일이 또래 아동보다 빈번하다. 이러한 문법구조에서의 결함들은 영어권 이외의 다른 언어권 아동들에게서도 발견되어 언어습득 관련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을 제공하고 있다(Hansson, Nettelbladt & Leonard, 2000; Bortolini, Caselli & Leonard, 1997; Dromi, Leonard & Shteiman, 1993).

이처럼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언어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된 서구권의 결과에 비추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단순언어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어의 경우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 보이는 문법적 결함은 문법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문법적 결함이 언어능력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문장처리과정에서의 수행상의 제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민아, 2003; 김미진, 2002). 특히 한국어는 담화·회용적 특성에 따라 어순의 자유로움이나 조사 생략을 허용함으로써 문장처리에서 문법정보와 의미정보의 영향이 다를 수도 있으며, 각 단서가 문장 처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양상일 수 있다. Evans & MacWhinney(1999)는 영어를 사용하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을 표현언어에만 결함이 있는 아동과 이해와 표현 모두에 결함이 있는 아동으로 구분하여, 문법적 측면(문장내 단어의 어순단서)과 의미적 측면(문장 내 명사의 생물성 단서)을 변화시킨 문장의 이해과정에서 이 두 집단의 수행을 정상아동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단순언어

어장애아동들 중 특히 언어표현과 이해에 모두 결함을 보이는 아동들은 생활연령이 일치된 정상아동들 뿐만 아니라, 언어연령이 일치된 어린 아동들에 비하여 생물성 단서, 즉, 의미 단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황민아(2003)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 세 가지 단서(조사, 어순, 생물성)를 체계적으로 조작한 문장을 이해할 때, 세 단서를 활용하는 양상과 그 정도를 언어연령이 일치된 정상아동들, 그리고 생활연령이 일치된 정상아동들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 조사 단서를 처리하는 능력은 언어능력이 비슷한 정상아동들과는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의미적 단서인 생물성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문장이해에서 의미적 단서의 영향을 정상아동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 한편 어휘획득 전략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차이를 살펴본 이주희·이승복(2000)의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도 적절한 어휘획득 전략을 사용하면 습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문장 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작용기억(working memory)이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언어 이해력 결함에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Montgomery, 2000; Weismer & Hesketh, 1996).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언어적 작용기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문법적 표지 등에 대한 주의처리용량이 부족하므로 문장처리의 결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문법발달에서의 제한이 언어 능력의 제한 또는 언어 수행의 제한으로 논쟁이 이어지기도 하였다(Clahsen, 1991; Bishop, 1994).

문장이해의 기초가 되는 어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단어정의하기이다. 어휘에 대한 개념 범위를 한정하여, 스스로 정의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의미 발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법발달에 제한점을 보이는 언어장애아동의 단어정의하기는 문장이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어휘적 모호성을 가지는 문장의 이해와 관련된 연구는 문장 처리를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한 단어가 지닌 두 가지 의미가 똑같은 정도로 친숙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영어의 'bank'라는 단어는 '은행'과 '강가'를 각각 의미한다. 은행과 관련된 의미가 좀 더 많이 사용되므로 은행과 관련된 의미를 '우세하다(dominant)'라고 하고, '강가'의 의미를 '열세하다(subordinate)'라고 본다(Whitney, 1999). 많은 경우 우세한 의미가 먼저 선택되고 나서, 열세한 의미가 뒤늦게 선택된다고 한다.

Norbury(2005)는 언어장애아동과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어휘적 모호성 단어의 우세 의미와 열세 의미 이해를 평가한 결과, 이들 아동들이 정상아동보다 열세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처리를 위해서는 통사적 및 의미적 처리가 함께 요구되므로, 정상아동들과 비교하여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이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이나 발달장애아동은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문장 맥락을 제시하였을 때 해소되는 모호성의 처리에서 언어장애아동을 정상 집단과 비교하여 본다면, 문장의 통사론적인 처리가 어휘의 의미론적 처리와 상호작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에게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즉, 어휘적 모호성을 가진 단어를 제시하였을 때, 열세 의미와 우세 의미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이로 의미론적 처리에서

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문장 맥락을 제시하여 모호성을 해소하도록 단서를 제시하였을 때,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문장이 갖는 의미적 맥락 정보를 어휘 처리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을 맥락 내에서 이해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과제로는, 맥락을 편향²⁾시켰을 때 제시된 맥락단서를 적절히 이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실험 1에서는 14개의 어휘적 모호성을 가진 단어의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에게 제시하여 열세 의미와 우세 의미 각각에 대한 정의하기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제시하였던 어휘적 모호성 단어를 문장 맥락 내에서 제시하여 열세 의미와 우세 의미 각각에 대한 맥락편향효과의 유무와 집단 간 차이, 그리고 문장 처리에서의 순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실험 1 : 개별 단어 정의하기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은 단순언어장애 아동 14명과 정상 아동 28명이었다. 정상 아동들 가운데 14명은 단순언어장애 아동들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이고 나머지 14명은 단순언어장애 아동들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이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1)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PRES, 김영태 · 성태제 · 이윤경, 2003) 검사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지체되었으며, (2) K-WPPSI(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echsler, 1967; 박혜원 · 광금주 · 박광배, 1997)의 5가지 동작성 소검사들로 측정된 지능이 85 이상이며(-1SD 이상), (3)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은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생활연령 분포는 4세 3개월부터 6세였으며, 언어연령 분포는 통합언어연령이 3세 5개월에서 5세 3개월에 걸쳐 있었다.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 아동은(이하 언어연령 일치 아동) (1) 부모나 주양육자에 의하여 “정상”으로 보고되고, (2) PRES 검사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생활연령에서 6개월 이내에 속해야 하며, (3) 이와 같은 언어연령이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 3 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고, (4) K-WPPSI 검사 결과 지능이 85 이상이며(-1SD 이상)인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은(이하 생활연령 일치 아동)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정상 발달로 보고된 아동들 중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생활연령 차이가 ± 2 개월 이내인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언어연령 일치 아동의 생활연령 분포는 3세 7개월부터 5세였으며, 언어연령 분포는 통합언어연령이 3

²⁾ 우세 의미는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를 뜻하며, 열세 의미는 사용빈도가 낮은 어휘를 말함.

세 7개월에서 5세 6개월에 걸쳐 있었다.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의 생활연령 분포는 4세 4개월부터 6세 2개월에 걸쳐 있었다.

각 집단에 대한 언어연령 및 생활연령은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평균 66.2개월)과 생활연령아동 집단(평균 66.0개월) 간에 생활연령에 차이가 없었으며,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평균 53.4개월)과 언어연령일치아동 집단(평균 53.8개월)간에도 PRES 검사 결과 언어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도구

실험 1에서 사용된 어휘적 모호성 어휘는 김광해(2001)의 ‘한국어의 등급별 총어휘 선정’과 국립국어연구원(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읽기, 쓰기 교과서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김광해(2001)와 국립국어연구원(2003) 자료에서 어휘적 모호성을 가진 단어들을 선정하여, 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읽기, 쓰기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 총 24개를 우선 선정하였다. 이후 4세, 5세, 6세 각 2명씩 총 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아동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10개 단어를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총 14개 어휘를 선정하였다(<부록 - 1>참조). 이때 제외된 10개의 단어는 ‘고장’, ‘위’, ‘우리’, ‘일기’ 등의 어휘처럼 대명사나 동작어, 또는 보다 복잡한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단어들이었다.

다. 절차

실험은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조용한 교실 또는 가정에서 모든 피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하기로 아동과의 라포를 형성한 후 검사자는 아동에게 어휘적 모호성 단어 14개에 대하여 단어정의하기 형태로 우세의미와 열세의미를 아는지를 질문한다(예, “다리”가 무슨 뜻인지 말해주겠니?... 그리고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지?). 각 아동마다 1 - 2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히 절차를 이해하도록 한 후 본 실험에 들어갔다. 아동이 정의하기에 대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주겠니?’, ‘그것 말고 또 뜻이 있는데...’ 등의 간단하지만 통제된 반응하기를 해주어, 우세 및 열세의미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라. 자료분석

각 낱말의 정의정확도는 박경애·김영태(2000)를 참조하여, 낱말의 주요 특성과 부수적인 특성 모두를 말하는 경우 2점, 한 가지 특성만을 말하는 경우 1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세의미 정확도와 열세의미 정확도 각각을 채점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사가 아닌 ‘사과’와 같은 동작어일 경우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요’,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에만 2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집단 간 변량분석을 통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집단, 그리고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집단 간의 개별 어휘 수준의 우세 및 열세의미의 정의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세 집단 간에 우세와 열세의미의 정의하기 반응의 차이는 집단은 피험자간 변수, 정의하기 조건은 피험자내 변수인 이원변량설계로 분석되었다.

2. 결과 및 논의

가. 개별어휘 정의하기의 비교 결과

(1) 편향효과에 따른 집단 간 반응점수 차이 분석

14개의 개별 모호성 어휘의 우세와 열세의미 각각에 대한 정의정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집단(3) × 개별어휘 정의하기(2)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어휘 정의하기는 우세의미와 열세의미 편향에 의한 정의하기로 반복측정되었다. 개별어휘 정의하기의 평균 점수는 <표 - 1>에 제시하였으며, 변량분석 결과는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 1>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SLI)이 정상아동 비교집단(언어연령 비교집단(LA), 생활연령 비교집단(CA))과 비교하여 우세의미와 열세의미 조건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우세의미 처리는 정상아동 집단, 즉 언어연령일치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 1> 편향효과에 따른 개별어휘 정의하기 반응의 평균

편향효과 \ 집단	SLI	LA 일치	CA 일치
우세의미	12.42(1.91)	13.64(2.23)	13.07(1.14)
열세의미	2.92(2.78)	6.42(3.83)	9.92(2.94)
전체	7.67(2.34)	10.03(3.03)	11.49(2.04)

(숫자는 평균 반응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

집단 간의 차이와 편향효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F_{(2, 39)} = 11.79, p < .001$)과 편향효과($F_{(1, 39)} = 188.07, p < .001$)에 따른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집단과 편향효과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F_{(2, 39)} = 14.83, p < .001$), 편향효과로 인해 열세의미에서 세 집단 모두 어려움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우세단어 정의하기에서는 언어연령일치아동과 생활연령일치아동의 점수와 비교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열세의미에서는 나머지 두 집단과 비교해 많이 뒤떨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언어연령일치아동,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생활연령일치아동, 언어연령일치아동과 생활연령일치아동의 세 쌍의 집단에 대한

변량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과 개별어휘 정의하기의 상호작용은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언어연령일치아동 사이에서($F_{(1, 26)} = 2.69, p < .086$), 그리고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생활연령일치아동 사이에서($F_{(1, 26)} = 26.34, p < .001$)만 유의미하였고, 두 정상아동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해 개별어휘 정의하기의 열세의미에서는 결함을 보이지만, 우세의미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들과 비교하여 열세단어의 정의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지만, 우세단어의 정의 능력은 비슷하였다. 즉, 열세의미 정의하기에서는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편향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단순언어장애아동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편향효과가 문장맥락을 주어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2를 실시하였다.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처리과정에서 개별 어휘과제에서 우세하게 처리했던 단어만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맥락으로 주어지는 문장 모호성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문장맥락 속에서 세 집단 아동들의 어휘적 모호성 처리과정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Ⅲ. 실험 2 : 어휘적 모호성의 문장이해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실험 1에 참여했던 참여하였던 아동과 동일한 아동들이었다.

나. 도구

실험 2의 문장맥락에 사용된 문장은 실험 1에서 선정되었던 14개 어휘에 대하여 어휘적 모호성의 두 가지 의미가 한 문장 내에 모두 포함되도록 4 - 6어절의 문장으로 4 - 6세 아동의 흥미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어휘적 모호성 단어가 먼저 제시되거나 나중에 제시될 때의 순서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문장 내 위치를 주절과 종속절 순서를 맞추어 두 문장씩 총 28개 문장을 제시하였다.

다. 절차

실험 1을 실시한 후, 1주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아동을 다시 방문하여 문장 맥락 내에서 목표 어휘적 모호성을 이해하는 지를 질문하였다(예,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아팠어요’에서 ‘다리가 무슨 뜻인지 말해주겠니?’). 처음 14개 문장에 대하여 질문하고, 다시 모호성 단어의 제시 순서를 고려하여 ‘다

리가 아픈데도 다리를 건넜어요'에서처럼 주절과 종속절의 순서를 바꾸어(역균형화 순서로) 각 대상 아동별로 질문하였다. 문장은 한번만 읽어 주었으며, 아동이 잘못 알아듣거나 다시 요구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읽어 주었다. 순서효과를 고려한 14개 문장을 뒤이어 제시하고 아동의 반응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라. 자료분석

문장맥락으로의 편향효과에 대해서는 개별어휘 정의하기에서 우세하게 처리했던 단어를 문장맥락에서도 우세하게 처리하는지(4가지의 경우), 또는 개별어휘 정의하기에서 열세의미로 처리한 단어를 문장맥락에서는 우세 또는 열세로 처리하는지(4가지의 경우)를 포함하여 총 8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각각을 반응하기(정반응 1점, 오반응 0점)로 채점하였다. 개별정의하기에서 이미 아동의 우세의미와 열세의미에 대한 정의하기 반응을 얻었으므로, 실험 2에서는 아동이 주어진 문장 내 모호성 단어를 열세 또는 우세의미로 처리하는지만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이 말하는 단어 정의가 우세의미인지 열세의미인지만을 평가하였다. 즉, 아동이 우세든 열세든 단어의미를 말하는 경우 정반응 1점이며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몰라요' 등으로 답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한 집단 간 변량분석을 통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 그리고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집단, 생활연령의 일치시킨 정상아동 집단 간의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어휘가 문장 맥락에서 주어질 때의 편향효과를 비교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가. 문장맥락 정의하기의 비교 결과

(1) 편향효과에 따른 집단간 반응점수 차이 분석

<표 - 2>와 <표 - 3>은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생활연령일치아동, 언어연령일치아동이 문장맥락 내에서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단어를 우세의미와 열세의미 각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즉, 개별어휘 정의하기에서는 우세하게 처리했던 단어를 문장맥락에서도 우세하게 처리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네 가지의 편향효과로 살펴보았다. <표 - 2>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세의미의 경우에는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 모두 개별어휘과제에서 우세하게 처리하였던 단어를 문장맥락에서도 먼저 우세하게 처리하였으며(7.57 vs. 8.00/8.00), 개별어휘 정의하기에서 오반응일 경우에는 문장맥락에서도 역시 오반응하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 2> 문장맥락에서의 우세의미 정의하기 반응점수의 평균

편향효과 \ 집단	SLI	LA 일치	CA 일치
정/정	7.57(1.82)	8.00(2.41)	8.00(2.00)
오/정	1.07(1.26)	0.28(0.61)	1.35(2.14)
정/오	4.78(1.62)	4.71(2.43)	5.14(2.03)
오/오	0.64(1.00)	1.00(1.88)	0.28(0.72)

(숫자는 평균 반응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

(정/정: 개별어휘정의하기에서 정반응한 것을 문장맥락에서도 정반응

오/정: 개별어휘정의하기에서 오반응한 것을 문장맥락에서는 정반응

정/오: 개별어휘정의하기에서 정반응한 것을 문장맥락에서는 오반응

오/오: 개별어휘정의하기에서 오반응한 것을 문장맥락에서도 오반응)

그러나 열세의미의 경우에는 <표 -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개별어휘 과제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오반응으로 반응하였더라도, 문장 맥락에서는 정반응을 보여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단어를 문장맥락에서는 더 많이 이해하는 듯한 점수 반응을 보였다.

<표 - 3> 문장맥락에서의 열세의미 정의하기 반응점수의 평균

편향효과 \ 집단	SLI	LA 일치	CA 일치
정/정	0.42(0.75)	2.42(1.45)	4.14(1.91)
오/정	3.85(1.95)	1.78(2.19)	1.85(2.14)
정/오	1.57(2.10)	3.42(3.03)	5.00(2.00)
오/오	8.07(2.01)	6.35(3.15)	2.92(2.23)

(숫자는 평균 반응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

문장맥락에서의 열세의미 처리가 전체적으로는 생활연령일치아동, 언어연령일치아동, 단순언어장애아동 순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개별어휘 열세의미 정반응 점수가 워낙 낮아서 오히려 개별어휘에서 오반응했다가 문장맥락에서 정반응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경우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하여 문장맥락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오반응률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해 정반응에서 워낙 낮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 점수로 본다면 문장맥락을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여전히 문장맥락내에서도 열세의미 이해가 어려웠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문장맥락에서 어휘적 모호성을 열세의미 이해에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개별어휘 정의하기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해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맥락에서도 열세의미에서는 결함을 보이지만, 우세의미 처리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순서효과에 의한 집단 간 반응점수 차이 분석

어휘적 모호성 단어가 문장 내에서 먼저 제시되거나 나중에 제시될 때의 순서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어휘적 모호성 단어의 문장 내 위치를 주절과 종속절 순서를 맞추어 두 문장씩 제시한 경우의 순서효과를 살펴보았다(<부록 - 1> 참조). 예를 들어,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아팠어요’라는 문장에서 아동이 답한 ‘다리’에 대한 정의가 ‘bridge’의 의미라면, 이러한 ‘bridge’의 의미를 ‘다리가 아픈데도 다리를 건넜어요’라는 두 번째 문장이 제시된 경우에도 주절과 종속절의 단어 제시 순서와 관계없이 같게 답하는지, 혹은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모두 첫머리나 끝머리의 순서에만 집착하여 처리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표 - 4>는 문장맥락에서의 어휘적 모호성 단어 제시의 순서효과를 언어연령일치집단, 단순언어장애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데, 언어연령일치아동과 생활연령일치 아동 집단은 문장의 나중에 제시된 어휘적 모호성 단어를 주절과 종속절을 바꾼 두 가지 문장 모두에서 같게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처음에 제시된 단어를 두 문장 모두에서 같게 답하거나, 나중에 제시된 단어를 두 문장 모두에서 같게 대답한 경우가 비슷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순서효과를 <표 - 4>에서처럼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 아동 집단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연령일치아동($F_{(4, 65)} = 3.47, p = .012$), 단순언어장애아동($F_{(4, 65)} = 4.71, p = .002$), 생활연령일치아동($F_{(4, 65)} = 20.41, p < .001$) 각각에서 순서효과가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과 정상아동 집단 간의 단어제시 순서효과를 문장의 앞과 뒤에 제시한 경우 각각을 묶어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순서효과($F_{(1, 39)} = 16.61, p < .001$)와 집단($F_{(2, 39)} = 3.99, p < .05$)에 대한 주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_{(2, 39)} = 2.86, p = .07$).

<표 - 4> 문장맥락에서의 어휘적 모호성 단어 제시 순서효과

편향효과 \ 집단	SLI	LA 일치	CA 일치
FF	3.14(1.87)	3.35(1.82)	3.50(1.34)
F	1.35(1.21)	1.57(1.86)	1.07(2.16)
SS	1.71(1.72)	2.00(2.21)	2.85(1.91)
S	3.35(1.73)	4.28(1.72)	5.35(1.39)
전체	2.38(1.63)	2.80(1.90)	3.19(1.70)

(숫자는 평균 반응점수, 괄호 안은 표준편차)
 (FF: 문장에서 처음에 제시된 단어를 두 문장에서 같게 답한 경우
 F : 문장에서 처음에 제시된 단어를 첫 문장에서만 답한 경우
 SS: 문장에서 나중에 제시된 단어를 두 문장에서 같게 답한 경우
 S : 문장에서 나중에 제시된 단어를 두 번째 문장에서만 답한 경우)

결과적으로, 정상아동의 경우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처리에서 어휘적 모호성 처리를 위해 나중에 제시된 단어순서에 맞추어 처리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며, 이는 언어연령일치아동 집단보다 생활연령일치아동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순서효과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F_{(2, 39)} = 2.86, p = .07$)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는 있었다. 즉, 생활연령일치아동 집단의 경우 문장처리를 위하여 “끝머리에 주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처음 제시된 단어나 나중에 제시된 단어의 문장순서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우세의 미만을 처리할 수 있었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기타 반응이 많았는데, 무반응이거나 ‘몰라요’라고 반응한 경우로, 정상집단과 비교하여, 문장맥락처리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IV. 전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적 모호성의 이해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개별 어휘 수준과 문장 수준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정상 아동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1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해 개별어휘정의하기의 열세정의에는 결함을 보이지만, 우세정의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장수준의 이해를 측정한 실험 2에서는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고 우세 또는 열세 의미로의 처리능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별어휘정의하기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정상아동집단에 비해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맥락에서도 열세의미 처리에서는 결함을 보이지만, 우세의미 처리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별어휘정의하기에서 어려움을 보였던 열세의미가 문장맥락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어휘적 모호성에 대한 처리에 도움을 받아 정반응 점수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해석에 주의하여야겠지만,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적 모호성에 대한 이해는 열세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문장맥락에서는 정상아동과 같이 어휘적 모호성을 열등의미 이해에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휘적 모호성 단어가 먼저 제시되거나 나중에 제시될 때의 순서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문장 내 위치를 주절과 종속절 순서를 맞추어 두 문장씩 제시한 경우 순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상아동집단의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경우 특히, 어휘적모호성이 포함된 문장처리에서 어휘적 모호성 처리를 위해 나중에 제시된 단어순서에 맞추어 처리하는 반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처음 제시된 단어나 나중에 제시된 단어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우세의미만을 처리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어휘적 모호성 단어의 이차적인 열세의미 이해에는 어려움을 보였으며, 문장맥락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장맥락에서 열세의미를 이차적으로 다시 이해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장 내에 의미단서로 주어진 우세의미를 이용하여, 개별어휘정의하기 과제에서 산출하지 못했던 의미를 문장맥락에서 오히려 산출해 내는 듯한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개별어휘 열세의미 정반응 점수가 워낙 낮아서 오히려 개별어휘에서 오반응했다가

문장맥락에서 정반응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결과이다. 즉,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해 정반응에서 워낙 낮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 점수로 본다면 문장맥락을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여전히 문장맥락 내에서도 열세의미 이해가 어려웠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경우 정상아동집단과 비교하여 문장맥락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오반응율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문장맥락에서 모호성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경우, 우세의미처리는 정상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단어의미에 대한 작용기억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경우 순서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정상아동집단과 달리 우세의미 한가지에만 집착하는 경향성으로 발달적인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보여진다. 요약하면, 문장맥락에서의 모호성 처리에서도 우세의미 처리는 정상아동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정상아동과 비교해 처리능력의 결함이라기보다는 Bishop(1994)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발달적인 수행상의 결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이 문장이해를 위한 통사적 및 의미적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어휘적 모호성이 있는 단어가 문장 내에 제시될 경우, 통사적 및 의미적 정보 모두를 해석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언어장애아동들도 문장맥락의 우세의미정의하기에서는 정상아동들과 유사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처리 과정에서 의미적인 처리와 통사적인 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원성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하기의 내용 분석을 위하여 기능적 정의, 관계적 정의, 물리적 정의, 분류적 정의 등으로 각 개별 어휘 정의의 유형분석을 실시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단어정의하기 능력을 비교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또한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단어는 동음이의어 또는 동음다의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에 해당되는 어휘들만 사용하였지만, ‘깨다’, ‘말리다’, ‘찍다’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음다의 동사어의 이해와 관련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이 문장이해에서 동사정보를 사용하는 책략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학령기 언어장애아동의 언어능력 평가에 대한 도구가 제한적인 한국 상황에서, 어휘력과 관련하여 어휘적 모호성의 이해는 발달적인 준거의 마련을 위해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일 것이다.

어휘적 모호성의 이해는 학령기의 읽기 기술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Cairns, Waltzman & Schlisselberg, 2004). 따라서, 학령기 언어장애아동의 읽기 및 전반적인 언어 표현 및 이해력의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이해과제와 같은 맥락정보를 활용한 어휘적 모호성에 대한 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광혜(2001). 『한국어의 등급별 총어휘 선정』.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미진(2002).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능동문, 사동문, 피동문 이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태 · 성태제 · 이윤경(200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 박경애 · 김영태(2000).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정상아동의 보통명사 정의하기 능력 비교. 『언어정각장애 연구』, 5(2). 20-37.
- 박혜원 · 곽금주 · 박광배(1997). 『K-WPPSI(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배소영(2003). 영유아 언어 및 의사소통 진단평가 및 치료교육의 최근 동향: MCDI와 CSBS의 한국 적용. 『제 14회 말·언어임상 전문요원 교육』. 서울: 한국언어청능치료전문가 협회.
- 이승복(1994). 『어린이를 위한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정민사
- 이승복 · 한기선(공역). (1999). 『언어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주희 · 이승복(2000). 단순언어장애 어린이의 어휘획득 전략: 언어적 대조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59-172.
- 황민아(2003).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문장 이해: 단서이용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정각장애연구』, 8(3), 1-21.
- Bishop, D. V.(1994). Grammatical errors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mpetence or performance limitations? *Applied Psycholinguistics*, 15, 507-550.
- Bortolini, U., Caselli, M. & Leonard, L.(1997). Grammatical deficits in Italian-speak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0, 809-820.
- Cairns, H. S., Waltzman, D. & Schlisselberg, G.(2004). Detecting the ambiguity of sentences: Relationship to early reading skill. *Communication disorders quarterly*, 25(2), 68-78.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The Pisa lectures*. Dordrecht, Netherlands: Foris.
- Clahsen, H., Rothweiler, M., Woest, A. & Marcus, G.(1991). Regular and irregular inflection in the acquisition of German noun plurals. *Cognition*, 45, 225-255.
- Dromi, E., Leonard, L. & Shteyman, M.(1993). The grammatical morphology of Hebrew speak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ome competing hypothesi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6, 760-771.
- Evans, J. & MacWhinney, B.(1999). Sentence processing strategies in children with expressive and expressive-receptive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34*, 117-134.
- Frazier, L.(1989). Against lexical generation of syntax. In W. D. Marslen-Wilson(Ed.), *Lexical representation and process*(pp. 505-508). Cambridge, MA: MIT Press.
- Gopnick, M. & Crago, M.(1991). Familial aggregation of a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Cognition, 39*, 1-50.
- Grela, B. & Leonard, L.(2000). The influence of argument-structure complexity on the use of auxiliary verbs by children with SLI.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1115-1125.
- Hansson, K., Nettelbladt, U. & Leonard, L.(2000).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Swedish: The status of verb morphology and word ord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848-864.
- Langacker, R. W.(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onard, L. B.(1998).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ontgomery, J. W.(2000). Verbal working memory and sentence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293-308.
- Norbury, C. F.(2005). Barking up the wrong tree? Lexical ambiguity resolution in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s and autistic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0*(2), 142-171.
- Taraban, R. & McClelland, J. L.(1988). Constituent attachment and thematic role assignment in sentence processing: Influences of content-based expectation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7*, 597-632.
- Trueswell, J. C., Tanenhaus, M. & Garnsey, S.(1994). Semantic influences on parsing: Use of thematic role information on syntactic ambiguity resolu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285-318.
- Weismer, S. E. & Hesketh, L. J.(1996). Lexical learning by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Effects of linguistic input presented at varying speaking rates. *Journal of Speech and Learning Research, 39*, 177-190.

<부록 - 1> 실험 1과 실험 2에서 사용된 어휘적 모호성 어휘 및 어휘적 모호성이 포함된 문장

	어휘	문장 맥락	
1	다리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아픈데도 다리를 건넜어요
2	은행	은행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은행을 먹고 있어요	아저씨가 은행을 먹고 있는 은행에 갔어요
3	눈	밖에 눈이 내리는 걸 보는데 눈이 시렸어요	시린 눈으로 밖에 눈이 내리는 걸 보았어요
4	이	머리에 이를 잡는데 이가 빠졌어요	이가 빠지는데 머리에 이를 잡았어요
5	밥	구운 밥을 먹다가 보니 어느새 밥이 되었어요	어느새 밥이 되어서 구운 밥을 먹었어요
6	차	청주 가는 차를 타고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청주 가는 차를 탔어요
7	배	배를 많이 먹고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픈데 배를 많이 먹었어요
8	침	침을 맞는데 침을 꿀꺽 삼켰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침을 맞았어요
9	병	병이 든 사람에게 꽃 꽃은(답는) 병을 가져왔어요	꽃 꽃은(답는) 병을 병이 든 사람에게 가져왔어요
10	벌	벌을 서는데 벌이 날아왔어요	벌이 날아오는데 벌을 서고 있어요
11	장사	장사하는 사람에게 천하장사가 왔어요	천하장사가 장사하는 사람에게 왔어요
12	금	금이 간 곳을 들여다보니까 금이 나왔어요	금이 나온 곳을 보니까 금이 가 있어요
13	사과	사과를 먹다가 싸운 후 사과를 했어요	싸운 후 사과를 하고 나서 사과를 먹었어요
14	김	김이 나는 음식과 김을 같이 먹었어요	김과 김이 나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부록 - 2> 편향효과에 따른 개별어휘정의하기 반응의 변량분석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험자간				
집단	208.16	2	104.08	11.79***
오차	344.07	39	8.82	
피험자내				
정의하기	920.04	1	920.04	188.07***
집단×정의하기	145.16	2	72.58	14.83***
오차(정의하기)	190.78	39	4.89	

* $p < 05$, ** $p < .01$, *** $p < .001$

ABSTRACT

Lexical Ambiguity Comprehension of Korea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³⁾

Seungbok Lee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e Ran Lee

(Dept. of Speech Correction, Hyejeon Colleg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for lexical ambiguity in Korea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 (SLI). Fourteen SLI children, 14 chronological age-matched (CA) children and 14 language age-matched normal children (L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hildren were asked to define the presented 14 polysemous words (experiment 1). In experiment 2, using both meanings the dominant and subordinate of the 14 words, 28 sentences were given to measure the children's comprehen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ominant meaning of the ambiguous words was comprehended by SLI as well as by the normal groups. However, the definition (experiment 1) and comprehension (experiment 2) of the subordinate meanings in the SLI group were behind the performance of the two normal control grou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SLI children demonstrate a verbal definition skill lower than that of the normal children with similar language skills, they tend to rely more on dominant definitions when lexical ambiguity comprehension strategies are available.

Key Words: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 lexical ambiguity, verbal definitions, sentence comprehension, language acquisition

³⁾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2005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게재 신청일: 2006년 1월 20일
- ▶ 게재 확정일: 2006년 3월 20일

- ▶ 이승복(제 1 저자,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lsbok@chungbuk.ac.kr
- ▶ 이희란(교신저자): 혜전대학 언어교정과 교수, e-mail: hrlee@hyejeon.ac.kr